

성공회 대주교와 의장 주교 모임 보고

영국 켄터베리 대성당

2017 년 10 월 2 일 - 6 일

‘하느님의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교회’

성공회 대주교와 각국 의장 주교의 모임이 켄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의 주관 하에 2017 년 10 월 2 일 월요일부터 6 일 금요일까지 영국 켄터베리 대성당에서 열렸다.

우리가 모임에서 공유한 생각과 그 생각이 향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뒷받침되고, 우리의 성숙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나타났다. 이렇듯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많은 징표들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 모임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확신했다.

이번 모임에는 총 33 개 관구를 대표하는 주교들이 함께 했다. 세명의 의장 주교는 각각 관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고, 나이지리아와 루완다 그리고 우간다 주교는 성공회가 공유하는 생각과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 명의 주교가 참석을 거절해서 슬펐지만, 다음 모임에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수단의 새로운 의장 주교를 포함하여 이 모임에 처음 참석한 열 여섯 명의 새로운 의장 주교들을 환영했다. 그들은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하루 전에 이 모임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받았다.

첫 날 오전에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성공회 사명의 다섯 가지 목적,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화해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 도전에 초점을 맞췄다.

성공회의 내부적인 사안에 대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성공회의 내부적인 사안

우리는 2020 년에 램베스 컨퍼런스(Lambeth Conference)가 열리게 되어 기쁘고, 모든 관구들이 그들의 주교와 배우자가 컨퍼런스 참석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램베스 컨퍼런스의 비전을 알리기 위해 캔터베리 대주교가 2018 년과 2019 년에 열리는 지역 관구장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램베스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대주교 모임이 필요할 지 고려할 예정이다.

우리는 2016 년에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열린 성공회 상임위원회(Anglican Consultative Council, ACC)에서 결의한 사안들이 시행되고 있어 반갑다. 특별히 어린이와,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 대한 총체적인 보호가 각 관구마다 시행되고 있어 그렇다. 성공회 안전 위원회(Anglican Safe Church)가 출범한 걸 지지하고 또 환영한다.

우리는 지난 2016 년 1 월에 있었던 모임에서, 비록 우리가 동성 결혼에 대한 이해가 각 관구마다 너무 달라서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회의 이름으로 함께 가기로 분명히 정했다. 우리의 새로운 결의를 지지하고 이를 지속할 것이다.

2016 년에 설립된 대주교 집행 위원회(The Archbishop's Task Group) 에서 이 새로운 결의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냈는데, 특별히 공동 예식, 성지 참배에 대한 원칙과 그에 따른 실행, 화해와 회개를 위한 기도 주간 등에 대한 제안이 환영받았다.

우리는 애석하지만 스코틀랜드 성공회 교회가 동성 결혼에 대해 그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후에, 우리가 2016년 1월에 우리의 관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한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 결정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향후 3년 동안 에큐메니컬을 비롯, 다른 교파나 다른 종교간 모임에 성공회 일원으로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성공회 교회의 일원이지만, 성공회의 교리나 교회 정책에 관한 결정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그의 권한으로 이 결정을 집행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관구가 성공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구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북미 성공회교회는 성공회가 인정하는 관구가 아닌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미 성공회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사랑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비롯하여 1998년 렘베스 회의에서 명백히 규정한 원칙들에 동의하며, 경계를 넘는 개입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 관구들이 함께 사역을 구상하고 협력할 기회가 많음을 인정하지만, 어떤 관구가 다른 관구와 함께 일할 때에는 그 지역의 관구의 동의가 절대 필요하며 서로가 관구 주교의 허락을 구하는 예의를 보이는 것이 언제나 필요함을 인정했다.

만약 이러한 관행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지역 관구장 회의에서 다루고 지역 관구장 대표 주교나 캔터베리 대주교가 최종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관구의 동의 없이 경계를 넘어 다른 관구에서 사역하는 건 우리 안의 신뢰와 하나됨을 깨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전 협의 없이 다른 관구에서 진행한 사역이 있으면 이에 대해 돌이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2016 년에 합의한 사항을 재차 확인한다. 특히, 성공회가 성소수자들을 돕는데 실패한 지난 날에 대한 회한과, 성소수자들을 혐오하여 편견을 갖고 저지른 폭력에 대한 비난이다.

우리는 영국 성공회가 인간의 성을 문화적, 과학적,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 접근한 연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다음 모임에서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을 환영한다.

성공회 외부적인 사안

모임의 대부분은 전도와 제자훈련, 화해 그리고 평화 구축, 기후 변화, 식량 안보, 난민, 인신매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성공회 교회 외부의 사안들에 집중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모임 마지막 날에는 성공회 초교파 협의회(Anglican Inter Faith Commission)가 발족됐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우리는 자연재해와 재앙, 그리고 폭력과 위협으로 인한 고통과 상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빛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느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 온 교회 위에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하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섬길 이들을 이끌기 위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맹세한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2018 년 주님의 승천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선포를 믿도록 능력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길 요청한다.

우리는 전세계 성공회 관구 중 적어도 절반 가량의 지역에 식량 안보가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했다. 개발도상국들이 더 고통받고 있기는 하지만, 식량 공급의 불안은 다른 곳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섬들도 푸드뱅크(식량 원조 기구)에 의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모임에서 우리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많은 섬들과 저지대가 잠기는 위기를 비롯한 기후 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듣고 깊이 걱정했다. 우리는 윤리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의 영향은 고르게 분배되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뭄과 홍수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심지어 집을 지을 재료가 없고 홍수로 인해 발생하는 병을 처방 하기 위한 약들이 부족하며 다시 농사를 지을 땅들을 잃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가꾸는 청지기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과거에 있었거나 혹은 현재까지도 인종 분리 정책, 인종 말살과 내전이 있는 남수단, 부룬디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많은 지역에서 화해를 이루어 내기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역에 대해 들었다. 우리는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로 다짐을 했다.

우리는 무력 충돌의 현장에서 중재하는 사명에 헌신한다. 특별히 난민을 포함한 전쟁 희생자들을 돌보고, 당사자들의 권리를 유지하며, 성폭력과 국지적인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하고, 극단적인 박해와 테러 상황에도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이다.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화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는데, 개인적 관계, 집단, 사회적 차원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그 밖의 창조세계를 아우르는 단계를 포함한다. 화해는 복음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세상을 향한 화해의 소명과 메시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교와 대주교 배우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특별히 부여된 임무 때문에 최전선에 선 남편을 돕는 여성들의 중요성이 그렇다. 우리는 캐롤라인 웰비 여사의 리더십과 계획, 그리고 각각 처한 상황에서 주교들의 사역을 돕는 여성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정부의 진압의 결과로 원주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들었다. 진실과 화해 촉구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했고, UN 이 발표한 원주민의 권리 보호 이행을 요구했다. 우리는 모든 정부가 UN 의 이같은 선언을 지원하도록 독려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정의와 존엄의 가치를 촉구하시는 하느님의 요구를 상기하며, 기아에 직면한 수백 만의 사람들의 고통과 비극을 깊이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기아가 끝나고, 지속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서 식량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일에 착수했다.

우리는 분쟁과 박해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근거지를 잃은 6500 만 명의 난민과 실향민들, 자연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난 2000 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취약한 환경에 놓인 수백 만의 이민자들을 애도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앞서 언급한 고통받는 이들의 보호를 보장하고 즉각적인 필요 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4000 만에 달하는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고통에 관해 들었다. 이는 연약한 개인들을 학대하고 악용하여 이윤을 취하려는 비인간적인 범죄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가 속한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다룰 것이다.

우리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해서 논의했고, 몇몇 관구가 직면한 특별한 위기에 관해서도 들었다.

우리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지했고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에큐메니컬 및 초교파적 단체들과 함께 일했다.

우리는 성공회 협의회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했고, 특별히 사무총장, 램베스 팰리스(Lambeth Palace)의 직원들, 성공회 본부(Church House),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 우리를 환대한 캔터베리 성당의 관할 사제와 성당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 모임이 기도와 경청의 분위기로 꾸려질 수 있었다. 우리는 또한 엘셀름(St. Anselm) 커뮤니티의 기도와 협조에도 감사를 전한다. 우리는 서로의 교제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성공회의 충성스런 사역에 큰 힘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을 위해 전세계에서 기도로 함께 해 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켄테베리

2017 년 10 월 6 일